

제4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결과보고

1. 개요

- 일시·장소: 2020.11.25.(수). 14:00~17:00 / 화상회의(각자 공간)
- 참석자: 김영란 위원장 등 포럼위원(20), 전문가(2), 산림청 등 부처관계자(2), 연구진(2), 기자(2), 농특위 사무국(3) 등 31명
- 주요 내용: 주제발표 및 논의, 워크숍 추진계획안 보고 등
 - (주제)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, 농어촌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

2. 주요 내용 및 결과

① (발제1)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성인지적 분석

▶ 발제: 김둘순 위원, ▶ 지정토론: 태희원 연구위원(충남여성정책개발원)

《요약》

- 제4차(2020~2024) 기본계획*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헌분석
 - *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
- (비전/목표) 남녀 농어업인에 대한 성차별 해소, 성평등 실현 등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 않음
 - ☞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주요목표에 포함 필요
- (주요정책과제) 일부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
 - * 인적 통계 및 정책 목표 설정 시 성별 구분 없음
 - 핵심이슈인 법·제도적 지위개선, 대표성 제고 등도 제시하지 않음
 - ☞ 남녀 농어업인의 현실과 정책요구 차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
- (기본계획수립 과정 및 추진체계) 대부분 남성이 참여
 - ☞ 이행점검 지표구성 및 추진체계에 젠더 이슈 포함 및 성별 균형 참여 필요
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, 사업의 성평등 직·간접목적 구분과 이행점검 필요(태희원 연구위원)
 - 노인 복지정책은 확대되는 반면 영·유아, 아동·청소년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하며, 성별·생애주기별 이슈 파악과 수요 대응에 한계 있음. 정책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지적 접근 필요
 - 사업은 여성농업인에 맞춘 성평등 직접목적사업과 농촌주민 전체에 맞춘 성평등 간접목적사업으로 구분. 직접목적사업은 해당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체감도 향상 방안, 간접목적사업은 성별 특성·차이, 격차원인 분석이 필요
 - 사업의 이행점검을 제안. 직접목적사업은 사업자체의 품질향상, 수혜율을, 간접목적사업은 성별 수혜율 등 성평등 수준 관리가 필요, 농촌주민이 참여하는 성평등 모니터링 추진·환류 필요
 - 농촌 지속가능성을 위해 '사람이 없기/적기 때문에'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 하며, 소수의 작은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고안 필요
-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,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농촌현장도 변화될 것임(이명자 위원)
 - 돌아오기 위한 농촌을 위해 육아 문제 해결, 여성 가공사업의 애로사항을 점검·지원해주는 중간지원 역할 필요
- 법적 기본계획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 평가받는데, 이보다 삶의 질 기본계획이 성인지성을 반영해 수립됐는지가 중요. 아울러 '성별영향 평가법'의 역할(작동)에 대한 검토도 필요(오미란 팀장)
 - 여성농업인 기본계획보다도 여가부 차원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삶의 질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
- 성인지 분석시 성별 이외에도 사회문화·경제정치 조건 등에 대한 고려와 농촌의 사회문화·의식변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함 (강남식 위원)
 - * 세대·젠더·연령·인종 간 갈등문제 심각하므로 사회통합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식변화, 성차별 해소할 수 있는 가부장제 문화를 완화하는 의식교육 등

- 서비스 차원에서만 삶의 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**인권문제(성폭력, 여성폭력 등)도 함께 다뤄야 함**(김영란 포럼위원장)
 - 여성농민들의 과도한 노동, 생활기본권도 다뤄야 함(오순이 위원)
- **의료, 교육, 대중교통 인프라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** (오순이 위원)
 - 농어촌 지역개발차원에서 삶의 질 기본계획을 어떻게 성인지적으로 접근하고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학습했으면 함
- ➔ 지역단위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임. 향후 '삶의 질 기본계획 모니터링 지표', '지역단위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여성 세부정책과제 제안'으로 나눠 논의하고, 백서에도 담았으면 함(오미란 팀장)
 - * 삶의 질 기본계획은 각 부처의 종합계획으로 큰 틀과 범주를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이행점검 지표 등을 제안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제안하는 방법
- 삶의 질 기본계획에 **성인지적 관점을 어떻게 반영시켜야 하는지, 성별영향평가 제안(여가부), 이행점검시 성별영향평가 반영(이행점검지표 등) 등을 제안**(김돌순 위원)

② (발제2) 농산어촌 마을 공동체와 여성

▶ 발제: 김영란 포럼위원장, ▶ 지정토론: 정민철 박사(젊은협업농장 대표)

《요약》

□ (마을공동체와 젠더) 마을의 변화와 공동체성

- 농산어촌의 공동체는 보살핌과 배려의 가치가 중심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삶이 인정되어야 함
- 젠더 관점에서 여성과 마을의 이슈를 다룸: 지역, 공동체, 여성
 - 공동체 위기→가족해체/돌봄 공백→여성 탓→ 돌봄공동체 담당 적임자
 - 가족의 확장으로서 마을, 여성 주민에게 '엄마/딸/며느리의 역할' 기대

□ 돌봄 공동체로서의 마을, 그리고 여성

- 사회적 농업을 마을의 돌봄 공동체 조성의 방법으로 제시

《요약》

- 신규 유입인구 '귀농어·귀촌인, 결혼이주여성, 청년여성 등'의 공동체 역할 증진
 - 각종 마을사업에서 여성의 몫(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, 식사·청소 등의 노동 과중)
- 농촌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여성 역할
 - 마을 주민의 고령화로 전수, 보존활동 등을 위한 인력지원 필요
 - 전통문화 보전, 자연자원 지키면서 마을공동체 관계 유지 ex. 제주도 잠수 사례
- 도농교류에서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여성의 역할
- 국내 여성 농민단체들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연대, 국제 여성 농민 단체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필요
- 마을공동체, 즉 농촌 공동체성 확대분야를 부분별로 제안
 - 신규 유입인구의 공동체 역할 증진
 - 농촌 전통문화의 보전 활용
 - 도농교류 활동
 -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등

- 마을범위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며, 여성의 공공활동 범위는 면단위가 수월함. 마을공동체 내 여성의 역할이 크며, 여성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 필요(정민철 대표)
 - 마을범위는 생활차원에서는 '리', 의료·교육관련해서는 '면'으로 봄. 마을을 재생산 구조가 가능한 틀로 확대 또는 축소 등 유연하게 봄
 - 마을과 생존을 같이하는 농업 또는 분리된 농업이 있는데 여성농민 또는 신규 청년농업인의 경우 대부분 마을과 생존을 같이 함. 마을의 여러 가지 일에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마을공동체 관계망을 지속시킴
 - 여성들이 공공성을 확대하는 영역으로는 리단위 보다는 면단위가 수월할 듯함 * 면단위 주민자치회의 경우 여성 참여비율이 50% 이상임
 -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여러 활동*이 사라지면서 농촌경관 관리 등의 일이 국가, 공공으로 넘어가고 있다. 마을공동체에서 여성활동이 많은데,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차원에서 특히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줘야 함.

* 마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부역. 자연환경 유지, 마을교육, 마을복지 등

- 신규유입 인구(귀농인, 청년 등)로 오는 그룹이 있으면 농촌에 이를 받아 주는 그룹이 있어야 하며, 중간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여성의 역할이 큼
- 그간의 농산물과 화폐 교환 중심의 도농교류에서 인적교류 중심으로 전환하여 서로 간 공감대 형성 필요, 농촌을 교육적 공간으로 의미있게 활용하여 공간을 이용하는 도시 측에 농촌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함
- 마을 내 돌봄차원에서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연계, 결혼이민 여성과 인력이 필요한 여성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사회 연계시스템을 고민해 새 공동체 문화를 조성(오순이 위원)
- 청년들의 정주지원과 기존 마을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세트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(이소희 위원)
- 청년에게 농촌의 환경과 실태, 마을의 특성과 공동체 내용 등을 담은 교육이 필요함, 청년 여성농업인 조사결과도 교육 또는 정보로 제공 됐으면 함

4 (보고) 워크숍 추진계획(안)

- (추진방향) 2회차로 나눠서 진행
 - (1차) 연구 최종보고, 여성임업인 관련정책 소개 등(12.4, 10:00)
 - (2차) 워크숍(12월 14일 또는 21일 중 택1)
 - * 4개 주제별 논의 및 21년 논의 할 의제 도출
- (운영방식) 포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월드카페 토론방식
 - 포럼위원은 내용을 숙지하여 논의에 참여, 개선안 중심으로 논의하고 종합토론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까지 결정

3. 향후 주요 계획

- 연구 최종보고회 및 여성임업인 관련정책 소개·논의(12.4)
- '농어촌 여성정책 포럼' 워크숍 개최(12.21)